

# 상고대



| 박병현 / 한겨레신문 문화부장

**올** 해는 꽤나 험상궂은 추위로 시작했습니다. 정월 초하루를 전후해 서울이 영하 15도까지 떨어지고, 전국적으로 6년만에 가장 많은 눈이 내렸습니다. 가장 춥다는 날, 새해 들어 미뤄왔던 산행을 했습니다. 거창하게 산행이라고 했지만, 누구나 다 하는 수준의 짧은 오르내림이었습니다. 구기동 상명대학교 뒤 탕춘대 능선에서 시작해 비봉과 비봉능선을 지나 대남문, 대성문을 거쳐 평창동으로 내려왔으니까요.

춥기는 진짜 추웠나 봅니다. 보온병 마개가 얼어 붙을 정도였으니까요. 결국 준비해간 따듯한 물 한 모금 마시지 못했습니다. 겨울 산행은 그야말로 살을 에는 듯한 추위와 어른 몸뚱아리라도 간단히 날려버릴 듯한 드센 바람이 맞이라지만, 보온병 마개가 열리지 않을 땐 조금 후회가 되기도 했습니다.

비봉능선을 지나 대남문에 이르는 이 코스에는 특히나 매섭게 추운 곳이 있습니다. 북한산에서 겨울이 가장 길고, 그래서 눈이 가장 오래 동안 녹지 않는 곳이기도 합니다. 비봉 능선 꼬트머리에서 청수동 암문에 이르는 깔딱고개가 그곳입니다. 진관사쪽에서 올라오는 긴 삼천리골의 막바지 오르막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온도가 낮은 이유는 비봉능선에 가려 햇살 한번 들기 어려운 북사면 계곡인데

다, 삼천리계곡 골바람이 깔대기 꼭지로 쏟아내듯 불어대는 까닭입니다.

하지만 그리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쯤 오를 땐 이미 몸이 달궈질 만큼 달궈져 추위보다는 더위를 느낄 때이니까요. 대신 여러분은 겨울 북한산에서 가장 아름다운 장관 속으로 빠져들게 됩니다. 상고대가 군락을 이루고 있으니까요. 매서운 추위가 빚어낸 얼음 꽃이 바로 상고대입니다. 키 큰 소나무 떡갈나무는 물론 중키의 단풍나무, 키작은 작살나무, 땅을 기는 칩덩쿨까지, 웨딩드레스 보다 더 희고 고운 얼음꽃을 피워냅니다. 그 얼마나 눈부시겠습니까. 그곳에 이르면 흐른 땀이 머리카락에 고드름으로 맺히고, 추위가 가슴 속을 날카롭게 후비더라도, 대개는 닛 놓고 있기 마련입니다. 약간 맛이 간듯해 보이지만 누구도 그런 모습을 안타깝게 돌아보지 않습니다. 너나 할 것 없이 그렇게 닛을 놓고 있으니까요.

상고대가 무언지 아실 겁니다. 눈꽃과 혼동하시는 분이 많은데, 좀 엄격하게 말하면 눈꽃과 많이 틀립니다. 내린 눈이 나무 가지나 잎사귀에 쌓였거나, 그렇게 쌓인 눈이 얼어붙었거나 한 것을 두고 눈꽃이라고들 합니다. 눈만 내리면 산 어디에나, 나무 어디에나 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고대는

찌르는 추위와 매서운 칼바람 속에서, 바람에 실린 지극히 적은 양의 습기가 나무에 닿아 작은 얼음 알갱이로 얼어붙기를 거듭해 쌓인 얼음꽃이 바로 상고대인 것입니다

어디에나 피지를 않습니다. 높은 산 정상이나 능선 등, 추위 매섭고, 바람 드센 곳 혈벗은 나무들에게나 피어나기 때문입니다. 바람이 그렇게 드세니 눈이 아무리 내려도 눈꽃으로 남아있기 힘든 곳이기도 합니다. 태백산 정상의 주목 군락에 피어있는 상고대, 지리산이나 덕유산 정상의 고사목이나 구상 나무에 피어있는 상고대가 그중 유명합니다. 남도의 광주 시민들은 한겨울 무등산 서석대를 뒤덮은 상고대가 최고라고 자랑합니다.

찌르는 추위와 매서운 칼바람 속에서, 바람에 실린 지극히 적은 양의 습기가 나무에 닿아 작은 얼음 알갱이로 얼어붙기를 거듭해 쌓인 얼음꽃이 바로 상고대인 것입니다. 매서운 추위 속에 맞선 나무들에게서나 피어나는 것이죠.

올 한해 많은 어려움들이 이미 예고되어 있습니다. 미국의 이라크 침공과 치솟는 석유값, 북미간의 핵 갈등과 고조되는 한반도의 긴장, 그로 인한 경제 불안, 경기 침체와 쪼들리는 가계 등 살벌한 추위와 칼바람이 연초부터 유령처럼 우리 주위를 배회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우리 경제를 지탱하다시피 했던 소비심리가 냉각되고, 은행도 돈을 바짝 죄고 있어 사람들 마음은 더욱 바짝 얼어붙었습니다. 일부



덕유산 상고대

에선 주가가 4~5백선까지 떨어질 것이라느니, 원유값이 배럴당 평소의 두 배인 40달러까지 오르리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불가침협정을 피하는 미국과, 그에 대한 대응으로 핵개발 프로그램을 강행하고 있는 북한 사이의 날카로운 대결이 계속되는 이상, 설사 외적인 조건이 좋아진다 해도 우리 경제는 편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주눅 들 우리의 아내가 아니고 남편이 아닙니다. 6.25전쟁의 폐허를 딛고 일어섰고, 국가부도 위기도 의연히 극복했던 우리들입니다. 누구에게 손을 벌리고 동냥질을 해 일어난 게 아니었습니다. 실업의 칼바람과 저임금의 흑한에 알몸으로 맞서 싸운 결과입니다.

이제 다시 칼바람과 흑한이 밀려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람 찬 산정에서 그것들을 맞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런 시련은 산정의 상고대처럼 우리의 용기와 지혜를 빛나게 할 뿐이라는 것을.

이 겨울 가까운 산에 오른 당신의 모습을 상상해 봅니다. 당신은 가슴을 활짝 열고 저 북미대륙과 북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정면에서 맞을 겁니다. 그리고 산정의 나무들처럼 당신은 빛나는 상고대 꽃을 다시 한번 피울 것입니다. PPKK